정보

개요
곡명: Les préludes, S. 97
작곡가: Franz Liszt (1811–1886)
작품의 형성: 1844년 합창 프로젝트의 서곡 구상, 1845~1850년 초기 관현악 자료, 1853년 말 이후 개정 초연: 1854년 2월 23일, Weimar에서 Liszt 지휘
장르: 단악장 교향시 ( Symphonische Dichtung)
범위: 관현악 전곡

IMSLP: Les préludes, S. 97 (Liszt, Franz)

Wikipedia: Les Préludes

Les préludes, S. 97은 Franz Liszt가 합창곡의 서곡으로 구상한 음악을 독립 관현악곡으로 발전시킨 단악장 교향시다. 관현악 전곡은 느린 도입에서 시작해 서정적인 주제와 격렬한 대조, 목가적 구간, 행진적 종결로 이어진다. 곡은 하나의 악장 안에서 연속적인 흐름을 이루며, 도입의 짧은 동기와 주제가 변형되어 이후 구간을 잇는다.

출판 정보와 작품의 형성

Liszt는 1844년 프랑스 시인 Joseph Autran과 합창 작품 주기 Les quatre éléments 를 구상하면서 그 서곡에 해당하는 음악을 쓰기 시작했다. 1845~1850년 무렵에는 관현악 자료가 만들어졌고 , 재료는 합창곡의
도입부라는 원래 용도를 벗어나 독립 관현악곡으로 다듬어졌다 . Wolfgang Birtel의 Eulenburg 악보 서문은 1853년 11월 이후 Liszt가 주제와 연결부, 작품의 비례를 고친 과정을 설명하며, 이 단계에 Hans von Bronsart가 협력했음을 전한다. 현재의 작품은 초기 구상에 Liszt의 후속 개정이 더해져 형성되었다 .

Liszt는 1854년 2월 23일 Weimar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해 초연했다. 당시 포스터에는 Symphonische Dichtung, 즉 교향시라는 장르명이 쓰였다. 초판 총보는 1856년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에서 출판되었다 . Morgan Library & Museum의 소장 기록에 따르면, 초판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된 문안과 Lamartine을 언급하는 서문이 악보와 함께 실렸다. 이 판본은 악보와 문학적 프로그램을 함께 실어, 이후 독자와 연주자가 두 자료를 나란히 접할 수 있게 했다.

제목과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은 때

음악의 초기 구상은 Autran과의 합창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며, 현재의 제목은 Lamartine의 시와 연결되어 있다. 제목이 언제 이 작품에 붙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Birtel은 1846~1847년 무렵의 스케치북에 관련

흔적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기록은 제목과 시의 연결 시점을 좁히는 단서지만, 최초 음악적 착상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악보 앞의 장문 프로그램 문안은 Lamartine의 시와 음악을 연결하는 별도의 텍스트다. Revue musicale OICRM에 실린 Céline Carenco와 Nicolas Dufetel의 연구는 이 서문을 Lamartine이 직접 쓴 글로 보지 않는다. 두 연구자는 이를 Lamartine의 시를 되짚어 음악에 연결한 복합적인 해석문으로 설명하고, Liszt가 작성하며 Princess Wittgenstein이 도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확한 집필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 연구에 따르면 문안은 음악이 완성된 뒤에 쓰였다.

1856년 초판에 실린 서문은 삶을 미지의 마지막 노래를 앞둔 전주곡의 연속에 비유한다. 사랑으로 시작한
삶에 폭풍이 끼어들고, 전원에서 잠시 쉰 뒤 다시 위험과 싸움으로 향한다는 순서다. 이 문안은 작품의 서정적 도입과 폭풍, 목가적 구간, 행진을 하나의 철학적 흐름으로 연결한다.

1854년 초연 포스터에는 Symphonische Dichtung 라는 장르명이 쓰였지만, Lamartine의 시를 언급한 장문의 서문이 그날 청중에게 전달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Carenco와 Dufetel은 포스터의 장르 표기와 서문 배포를 구분하며, 초연 때 서문 전체가 관객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다. Morgan Library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서문의 수록 시점은 1856년 초판이다. 초연 포스터와 초판의 문안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이며, 후자는 작품과 문학적 프로그램을 연결해 읽을 통로를 제공했다.

Carenco와 Dufetel은 프로그램 문안이 이후 공연에서 유통된 경로도 기록한다. 파리에서 열린 1860년 두 대의 피아노 편곡 공연을 다룬 평론은 문안을 다시 인용했고, 1869년 프랑스 첫 관현악 공연에서는 인쇄된
설명이 배포되었다 . 이때 문안을 Lamartine의 글로 잘못 돌린 사례도 있었다. 문안은 공연과 출판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틀로 유통되었으며 , 저자 표기도 그 과정에서 함께 전해졌다.

한 악장 안에서 바뀌는 재료

악보에는 하나의 악장만 있다. 느린 도입 이후 템포와 관현악 음향은 여러 차례 달라지며, 앞서 나온 주제와 동기가 다음 구간으로 이어져 긴 흐름을 만든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해설은 선율 ·리듬 ·화성 ·음색 · 강약 ·속도의 변화에 따라 주제가 계속 변형된다고 설명한다.

도입의 짧은 동기는 곡 전체에 걸쳐 여러 역할을 맡는다. 서정적인 선율은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폭풍을
묘사하는 빠른 구간에서는 앞서 나온 재료가 긴박한 추진력으로 바뀐다. Los Angeles Philharmonic 해설은 서정적 주제에 포함된 세 음짜리 동기가 후반부에서 전투를 알리는 외침처럼 변한다고 짚는다. 반복되는
재료의 리듬과 관현악 배치가 달라지면서 음악적 역할도 함께 바뀐다.

St. Louis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노트는 폭풍을 나타내는 Allegro ma non troppo 와 목가적인 Allegretto pastorale 를 대비한 뒤, Allegro marziale animato 의 행진을 거쳐 도입부 주제가 돌아오는
흐름으로 설명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 역시 서정적 흐름, 폭풍과 목가적 대비, 행진을
거쳐 장엄한 회귀로 마무리되는 한 악장의 진행을 제시한다. 이런 대비 속에서 앞선 선율은 긴 노래에서 행진의 주제로 성격을 바꾸며, 느린 도입의 재료는 결말에서 전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

일부 해설은 중간 흐름을 네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청취 지도를 제공한다. 이 구분은 각 자료의 설명 방식이며, 악보의 공식 구성은 단악장이다 . 주제 변형은 그런 구획을 넘어 하나의 연속된 진행을 이룬다.

## 연주자가 붙인 서로 다른 초점

2024년 Interlochen Public Radio 인터뷰에서 지휘자 JoAnn Falletta는 Liszt의 교향시를 구체적인 사건의 묘사보다 삶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음악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World Youth Symphony Orchestra(WYSO), Interlochen Philharmonic, Interlochen Wind Orchestra, Interlochen Summer Dance Ensemble이 함께하는 약 250명 규모의 축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Falletta는 인터뷰에서 뒤쪽 연주자까지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고, 특히 `Les préludes`에서는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의 간격이 컸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특히 독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말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연주자와 소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색소폰과 유포니엄, 금관과 타악기가 함께 만드는 큰 음향을 축제 공연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 시야와 거리, 확장 편성은 약 250명이 함께한 합동 무대의 실제 조건이다.

평론가들은 서로 다른 연주의 초점을 기록했다. Mark Swed는 2011년 Los Angeles Times의 공연 리뷰에서 Leonard Slatkin이 작품의 서정적 중심과 잘 알려진 주제를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Jonathan Woolf는 2018년 MusicWeb International에 실린 리뷰에서 Martin Haselböck와 Orchester Wiener Akademie의 시대악기 녹음 (2010~2017년, Gramola 99150)을 다뤘다. 그는 이 녹음을 자신이 들어 본 것 가운데 가장 빠른 편으로 꼽고, 특히 `Allegro non troppo`와 후반 `tempo di marcia`에서 시대악기가 짜임을 또렷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 평가는 한 비평가가 특정 녹음에서 들은 음향과 빠르기에 관한 판단이다.

##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16~18분가량 걸린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약 16분, St. Louis Symphony Orchestra는 약 17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18분으로 안내한다. 기관별 표기는 연주 속도와 호흡에 따라 달라지는 실연 시간을 반영한다.

## 편성

| 악기군 | 편성 |
|---|---|
| 목관 | `flute 3`(제 3주자는 `piccolo` 겸용), `oboe 2`, `clarinet 2`, `bassoon 2` |
| 금관 | `horn 4`, `trumpet 2`, `tenor trombone 2`, `bass trombone 1`, `tuba` |
| 타악기 | `timpani`, `snare drum`, `cymbals`, `bass drum` |
| 기타 | `harp` |
| 현악기 |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

St. Louis Symphony Orchestra의 편성표는 제 3플루트의 피콜로 겸용과 세 대의 트롬본을 명시하고,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트롬본을 테너 둘과 베이스 하나로 구분한다. 두 기관의 해설은 타악기를 세부 악기까지 열거하지 않는다. IMSLP의 파트 목록에는 스네어 드럼·심벌즈·베이스 드럼이 나온다. Interlochen 공연의 색소폰·유포니엄·추가 금관은 축제용 확장 편성에 속하며 Liszt의 악보에 적힌 기본 편성과 구별된다.

# □□ □□


- Boston Symphony Orchestra, Liszt `Les Préludes` □□
- Wolfgang Birtel, Franz Liszt□ `Les préludes` Eulenburg study score □□
- Morgan Library & Museum, 1856□ Breitkopf & Härtel □□ □□
- Céline Carenco·Nicolas Dufetel, “Orienter l’écoute et la réception. La diffusion des préfaces aux poèmes symphoniques de Liszt dans les salles et la presse en Allemagne et en France (1850-1914) : une enquête préliminaire,” Revue musicale OICRM 7/1 (2020)
- Los Angeles Philharmonic, Orrin Howard□ `Les préludes` □□
- Paul Schiavo, “Debussy and Liszt (March 28 & 30, 2025),” St. Louis Symphony Orchestra □□□□ □□
- Scott Clemens, “‘An epic concert’: Conductor JoAnn Falletta prepares massive rehearsals and emotional collaborations with WYSO,” Interlochen Public Radio, 2024-08-01
- Mark Swed, “Music review: Leonard Slatkin returns to the Hollywood Bowl,” Los Angeles Times, 2011-08-24
- Jonathan Woolf, “Liszt Weimar GRAMOLA 99150,” MusicWeb International, 2018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47 UTC by □□□
Updated 2026-10-04 10:04:47 UTC by □□□